"BTS 북클럽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직 기자 출신 최병관 '방탄독서' 펴내 BTS가 읽고 사랑하는 문학 정리 '소년이 온다' '이방인' '데미안' 등 37권 정체성·모험 등 7개 키워드로 엮어

어느 일요일 딸의 공부방에서 흘러나온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를 들었다.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다. 한마디로 귀에 꽂혔다. 이후 스마트폰 플레이리스트에 BTS 노래만 담고 다녔다. 시중에 나와 있는 BTS 관련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2019년 8월 문학, 인문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탄 신드롬을 조명하는 'BTS 인사이트 포럼'에 참석했다.

올해 50대 중반인 어느 '쉰 아재'는 그렇게 BTS에 빠졌다. "가족보다 방탄이 좋냐?"라는 힐난이 쏟아졌지만좋은 데 나이와 체면이 무슨 대수인가 싶었다. 쉰 아재는 스스로를 '아미'라고 생각한다. "공식적인 아미는 아니지만 BTS가 지향하는 철학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기때문에 자신있게 아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기자 출신으로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최병관〈사진〉 씨의 얘기다. 그는 빌보드 싱글차트와 앨범차트 동시 1위를 달성한, '전 세계 대중문화의표준' 인 방탄소년단의 '선한 영향력'에 주목했다.

최 연구원이 최근에 펴낸 'BTS가 사랑하는 문학-방 탄독서' (정한책방)는 BTS가 추천하거나 읽은 책은 물 론 음악적 모티브가 된 책에 대한 조명이다. 정부 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니 전화 연결이 쉽지 않았다. 그러 나 도대체 무엇이 쉰 아재를 BTS의 '아미'가 되게 했는 지 그 이유와 책 발간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약 1년 동안 '방탄 리스트'를 읽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죠.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이미 읽은 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아직 읽지 않은 책들도 있었다"며 "퇴근하면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은 채 오직 방탄의 노래를 들으며 책을 읽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책에서 다루는 방탄 리스트는 37개 작품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몇 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들었죠. 방탄은 7명이니까 모두 7개 키워드로 정리하면될 것 같았어요."

각 장의 키워드는 '정체성', '본질', '모험', '성장', '소통', '사랑', '위로' 등이다. 물론 각각의 키워드가 "방탄 멤버와 연계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각각의 작품에 대한 최 씨의 의견이 책에 오롯이 담겨 있다. 카뮈의 '이방인', 무리카미 하루키의 'IQ84', 단테의 '신곡', 헤르



만 헤세의 '수레 바퀴 아래서', 스 탕달의 '적과 흑', 어니스트 헤 밍웨이 '노인과 바다', 히가시노 게이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모리스 마테를링 크의 '파랑새' 등 책에 거론된 리스 트는 '고전의 진 수성찬'이라해도

가장 눈길을 끄는 책은 소설 한강의 '소년이 온다'다. 2015년 BTS가 공개한 '마 시티(Ma City)'에는 광주출신 제이홉이 담당했던 랩 가사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 '나 전라남도 광주 baby/ 내 발걸음이 산으로 간대도/ 무등산 정상에 매일매일 … 내 광주 호시기다전국 팔도는 기어 / 모두 다 눌러라 062-518'.

당시 국내 팬은 블로그를 통해 062는 광주 지역번호 이고 518은 5·18민주화운동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굳이 그 설명이 아니어도 빛고을 시민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소설 '소년이 온다'를 위로라는 키워드에 엮은 것에 대해 최 연구원은 "문학이 광주 시민에게 전하는 위로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원은 "2020년 5월 16일 처음 소설을 읽었는데 5월 18일에 마쳤다"며 "이게 무슨 운명인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정체성을 다룬 키워드에서는 카뮈의 '이방인'을 소개





한다. 최 씨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불합리한 삶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인다.

모험 키워드에는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소개돼 있다. 미시시피 강을 배경으로 다양한 여행기를 담은 소설은 모험 외에도 여행을 통한 자유를 그리고 있다.

사랑을 다룬 리스트에는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이 눈에 띈다. 소중한 것의 진정한 가치는 "역경을 딛 고 선 후에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밖에 소통 부분에서는 진정한 '변신'을 추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카프카의 '변신', 성장을 키워드로 한소설에는 홀든 콜필드의 '호밀밭의 파수간', 본질에서는 프리디히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을 소개한다. 한편 저자는 이번 '방탄 독서'가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는 계기도 됐으면 한다. "방탄의 노래를 들으며 '방탄 독서'를 읽는다"면 비대면 상황에서의 "또다른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는 광주 출신 BTS 제이홉을 비롯해 K-POP 스타 거리가 조성돼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홍상수 감독 베를린영화제 각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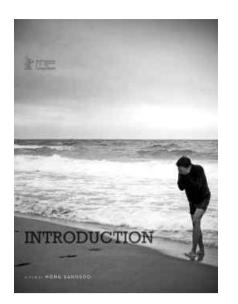
신작 '인트로덕션'으로 지난해 감독상 이어 수상

홍상수 감독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2년 연속으로 수상 소식을 알렸다.

홍 감독은 5일(현지시간) 폐막한 제 71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25번째 장 편 '인트로덕션'(사진)으로 은곰상 각본 상을 받았다. 지난해 '도망친 여자'로 감 독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이자, 베를린에서의 세번째 은곰상이다.

'인트로덕션'은 세 개의 단락을 통해서 청년 영호(신석호 분)가 각각 아버지, 연 인, 어머니를 찾아가는 여정들을 따라가 는 영화다.

심사위원들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내래이션을 효율적으로 진전시키는 것 이상으로 행동과 행동 사이의 순간적인 간격을 직조하는데, 거기서 인간사의 숨 겨진 진실이 갑자기 밝고 명쾌하게 드러 난다"고 평했다. 이번 영화에도 연인인 김민희가 출연했다. 김민희는 프로덕션 매니저로도 이름을 올렸다.



홍 감독이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것은 '밤과 낮' (2008),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2013), '밤의 해변에서 혼자' (2017), '도망친 여자' (2020)에 이어 다섯 번째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배우 김민희에게 은곱상 여우주연상을 안겼고, '도망친 여자'로 3년 만에 은곱상 감독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아시아문화원 노조 '아특법 개정안' 반발

고용보장 촉구 결의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아시아문화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나섰다.

아시아문화원지회(노조)는 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원 고용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 보장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으로 인해 아시아 문화원 250명 노동자를 대량해고로 내 모는 '정리해고법'"이라며 "광주지역에서 문화전당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약까지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서에 담긴 고용보장은 개정된 아특법 안에는 사라지고 노동자 들의 대량해고를 조장한다"며 "왜 노동자 가 정부의 정책 실패의 결과물의 피해자 가 되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된 법안은 훗날 언제든 법을 바꿔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구조 조정을 자행할 수 있는 무서운 선례를 남기는 악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 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 관광산업 상생협업사업 설명회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관광재단은 오는 11일 김대중컨벤 션센터에서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 상으로 코로나 19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 관광산업 상생 협업 사업설명회를 개최 한다.

재단은 현재 광주 특화 관광 상품 개발 과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지역 여 행업계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함께할 여 행사를 모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설명회 개최를 통해 실질

적인 지역 여행업계 지원사업인 '광주 협력여행사 공모 및 육성사업', 지속가능한 광주 관광산업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광주 예술관광 사업', 미향·예향·의향 관광상품 개발 사업인 '온리원 브랜드관광상품 개발 사업'등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지역 여행사의 의

전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1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 공모

8~26일까지 접수

광주문화재단은 주민들의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할 '2021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모집대상은 지역기초(각 구) 공공문화시설로 시설별 최소 5개 이상 동호회(4인 이상 구성)를 보유하거나 자 체 모집해야 한다.

선정된 시설은 지역과 문화시설 특성을 고려한 프로 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동호회 운영이 가능한 인력이 1명 이상 상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교육(강사비), 발표회(전시회 및 공연), 축제, 교류회(포럼) 등이며 최종 10개 내외 공공문화시설을 선정해 총 2억 원을 지원한다.(시설별 1000만 원~3000만 원 지원) 지원 가능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공예 등이며 기관 직원들로 구성(포함)된 동호회, 학생 동호회, 단순 감상 동호회 등은 지원 분야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8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문화시설(기관) 증빙서류, 개인정보 제 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접수해야 한다. 문의 062-670-7446/744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 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